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23-2호)

#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2024-2025년 겨울, 어떻게 지내셨나요?  
- 겨울날씨에 대한 인식

2025. 4. 2.

---

담당자 |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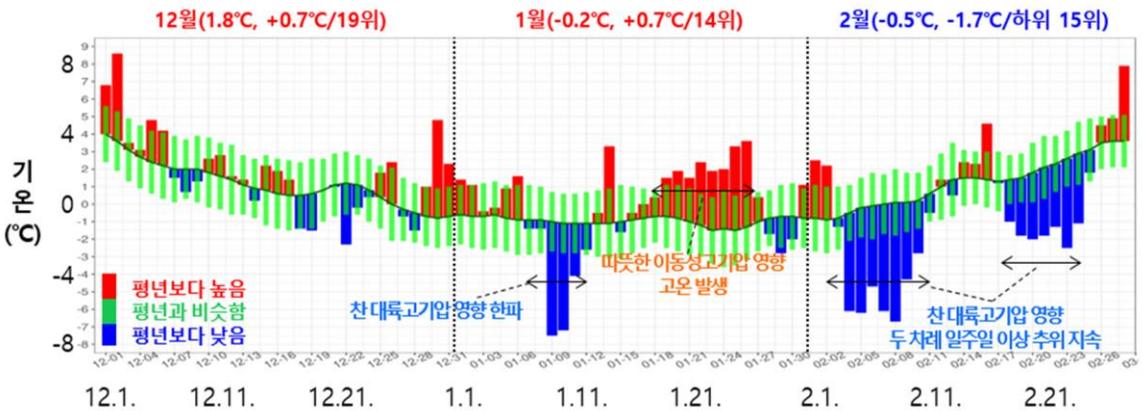
# 1

## 2024-2025년 겨울 날씨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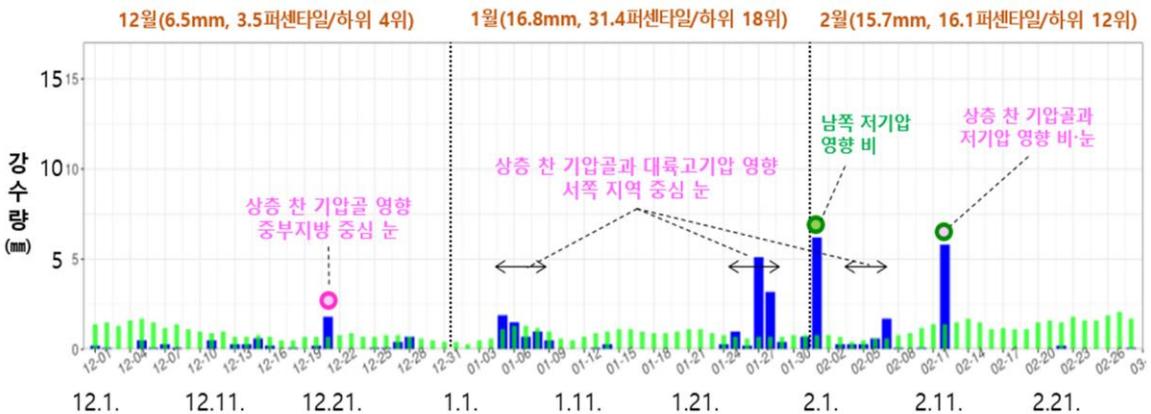
### 2024-2025년 겨울 평균기온은 평년과 비슷, 강수량은 역대 4번째로 낮아

지난 3월 5일, 기상청은 [2024-2025년 겨울철 기후특성을 발표](#)했다. 이번 겨울 전국 평균기온은 0.4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2월만 놓고 보면 평균기온이 -0.5도로 평년보다 1.7도 낮아 최근 10년(2016-2025년) 중 가장 추운 2월이었다. 겨울철 강수량은 39.6mm로 역대 4번째로 낮았고, 역대 최대였던 지난 겨울(236.7mm)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다만 눈은 평소보다 자주 내리서, 눈일수는 평년보다 6.0일 많은 21.9일을 기록했다.

2024-2025년 겨울철(2024년 12월 ~ 2025년 2월) 전국 평균기온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2024-2025년 겨울철(2024년 12월 ~ 2025년 2월) 전국 강수량 분포도 및 일별 시계열



출처: 2024년 겨울철 기후특성, 기상청 보도자료, 2024년 3월 5일, <https://www.kma.go.kr/kma/news/press.jsp?bid=press&mode=view&num=1194467>

##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추웠다는 사람 46%, 낮은 2월 기온의 영향 받은 듯 예년보다 눈·비가 많이 내렸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58%로 절반 이상

12월 ~ 2월 겨울 평균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올 겨울이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었다고 평가한 사람은 46%이다. 예년보다 따뜻했다(28%) 혹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26%)이라는 응답보다 20%포인트 가량 높고, 특히 60대(53%)와 70세 이상(54%)에서는 절반 이상이 예년보다 추운 겨울이었다고 평가했다. 평소보다 자주 내렸던 눈, 직전 2월의 추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비의 양은 역대 4번째로 적었지만, 사람들의 체감은 다르다. 이번 겨울 눈·비가 예년보다 많이 내렸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58%로 절반을 넘는다. 예년보다 적게 내렸다고 보는 사람은 17%이다. 강수량 자체는 적었지만 눈이 평소보다 자주 내렸던 것, 그리고 공식적으로 겨울은 아니지만 11월 말 중부지방의 폭설과 3월 두 차례 내린 눈이 응답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겨울 날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실제 측정값과는 차이를 보인다. 사람들은 실제보다 더 춥고 눈·비도 많이 내린, 견뎌내기 쉽지 않은 겨울로 받아들였다.

### 이번 겨울이 예년보다 추웠다는 사람 46%, 낮은 2월 기온의 영향 받은 듯 예년보다 눈·비가 많이 내렸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58%로 절반 이상

(단위 : %)

	사례수 (명)	기온			적설·강수량		
		예년보다 추웠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따뜻했다	예년보다 많이 내렸다	예년과 비슷했다	예년보다 적게 내렸다
전체	(1,000)	46	26	28	58	25	17
성별							
남자	(493)	49	28	23	57	27	15
여자	(507)	44	23	32	59	23	18
연령							
18-29세	(155)	48	28	24	57	28	15
30대	(149)	38	31	31	56	24	20
40대	(175)	41	24	35	57	23	20
50대	(195)	44	32	24	54	26	20
60대	(177)	53	21	26	67	24	10
70세 이상	(149)	54	19	26	57	27	16
거주지방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45	26	29	61	23	16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50	26	25	52	30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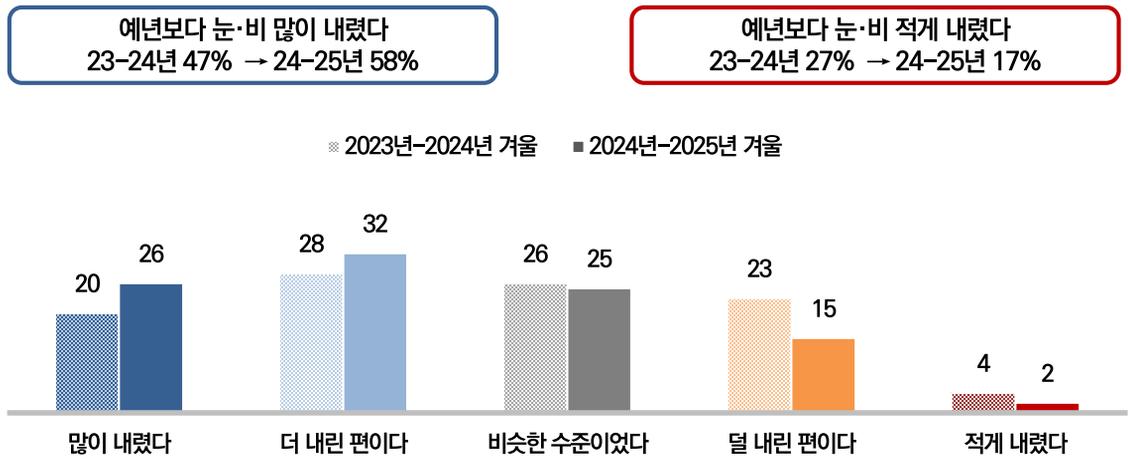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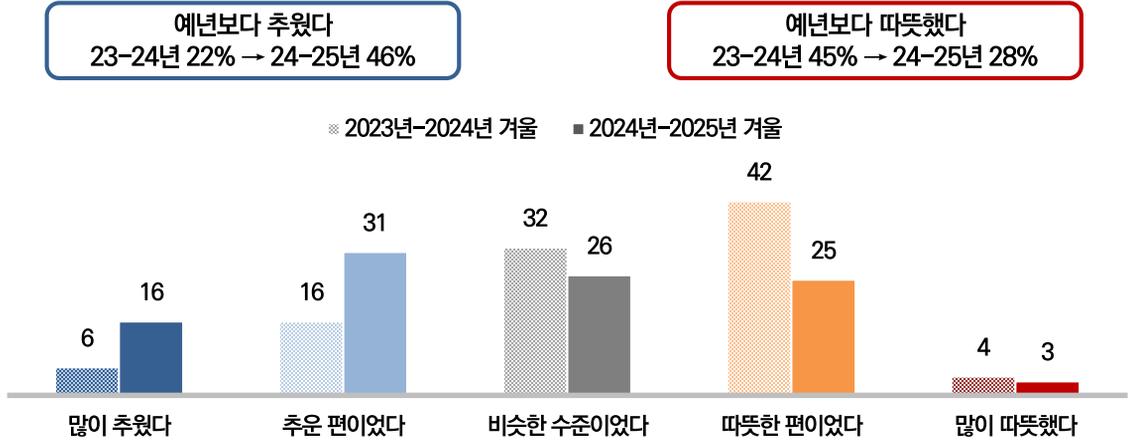
질문 : (기온) 2024-2025년 겨울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까?  
(적설·강수량) 2024-2025년 겨울에 내린 눈·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비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까?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5. 03. 21 ~ 24

2024-2025 겨울, 예년보다 추웠다 46%, 따뜻했다 28%, 1년 전 겨울과는 반대 인식  
 예년보다 눈·비가 많이 내렸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58%로 1년 전보다 증가

(단위 : %)



질문 : 기온 - 2023-2024년 / 2024-2025년 겨울 날씨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올 겨울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다?  
 적설·강수량 - 2023-2024년 / 2024-2025년 겨울에 내린 눈·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내린 눈·비는 예년에 비해 어땀던 것  
 같습니다?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4. 03. 22 ~ 25 // 2025. 0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2

## 2024-2025년 겨울나기

### 3명 중 1명(33%),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 받아 10명 중 1명(11%)은 이번 겨울 건강 나빠져

이번 겨울, 춥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는 사람은 25%이다. 기온이 높았던 1년 전 겨울과 비교하면 4%포인트가 증가했고, 특히 남성(21%)보다는 여성(30%)에게서 높았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사람은 33%이다. 겨울 강수량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1년 전(21%)과 비교해도 오히려 12%포인트가 증가한 결과이다. 잦은 눈 빈도와 함께, '눈폭탄'이라고 불릴 정도로 쏟아진 폭설이 영향을 준 결과로 보인다. 특히 30대(44%)와 40대(40%)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고, 남부지방(26%)보다는 중부지방(37%) 거주자가 더 큰 불편을 경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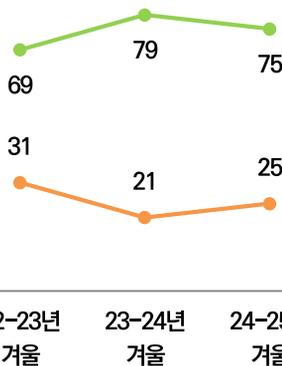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11%이다. 지난 겨울(8%)보다는 3%포인트 증가했고, 2년 전 겨울(11%)과 동일한 수준이다.

#### 3명 중 1명(33%),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 받아 10명 중 1명(11%)은 이번 겨울 건강 나빠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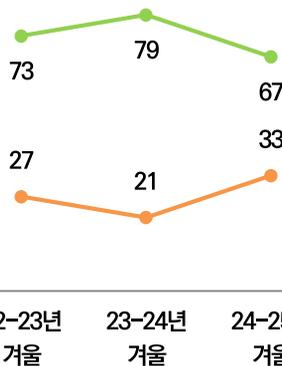
(단위: %)

— '매우 그렇다 + 그런 편이다' 응답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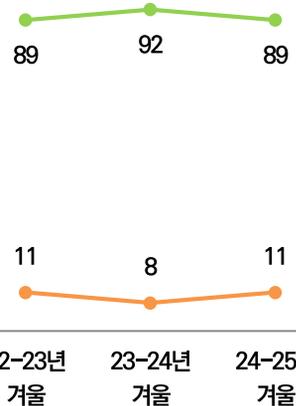
춥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질문: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 2023. 03. 24 ~ 27 // 2024. 03. 22 ~ 25 // 2025. 03. 21 ~ 24

**3·40대에서는 10명 중 4명 이상이, 중부지방 거주자 중에서는 37%가 이번 겨울 추위·폭설·폭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 받은 경험 있어**

(단위 : %)

	사례수 (명)	춡거나 건조해서 밤잠을 설쳤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추위나 폭설·폭우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b>전체</b>	(1,000)	4	25	5	33	2	11
<b>성별</b>							
남자	(493)	3	21	4	32	1	11
여자	(507)	4	30	6	35	2	11
<b>연령</b>							
18~29세	(155)	6	24	5	35	3	13
30대	(149)	9	31	11	44	4	14
40대	(175)	3	26	7	40	1	8
50대	(195)	2	23	3	30	2	11
60대	(177)	2	25	3	26	1	8
70세 이상	(149)	0	24	2	26	0	11
<b>거주지방</b>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4	24	6	37	2	11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4	27	3	26	1	10
<b>월평균 가구소득</b>							
300만원 미만	(331)	4	30	4	30	1	12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72)	3	24	6	35	3	12
600만원 이상	(297)	4	21	4	35	1	8

질문 : 올해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5. 0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3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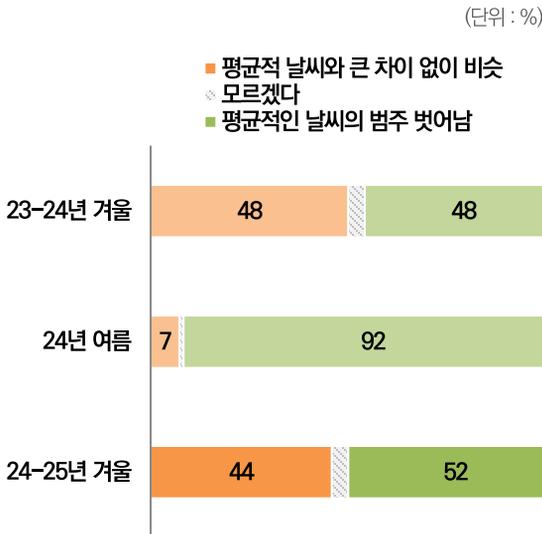
#### 이번 겨울 날씨 평년과 비슷했다 44%, 벗어났다 52% 60%는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 체감해

작년 겨울은 역대 가장 많은 눈·비가 왔고 기온도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 여름은 평균기온과 열대야일수 등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역사에 남을 정도로 매우 더운 여름이었다. 둘과 비교해 보면, 이번 겨울 날씨는 강수량이 적기는 했지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덜 극단적인 겨울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번 겨울 날씨가 일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고 평가한다. 절반 가량(52%)이 이번 겨울 날씨가 평균적인 범주를 벗어난 것 같다고 평가해, 평균적인 겨울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다는 의견(44%)보다 8%포인트 높다. 특히 60대(58%)와 70세 이상(55%) 등 고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진다.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사람도 10명 중 6명(60%)이다. 지난 여름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응답(92%)보다는 낮지만, 작년 겨울(60%)과는 동일한 결과이다. 특히 여성 중에서는 69%가 기후위기를 체감했다고 답해, 남성(52%)보다 17%포인트 높다.

이번 겨울 날씨 체감수준, 평년과 비슷했다 52%, 벗어났다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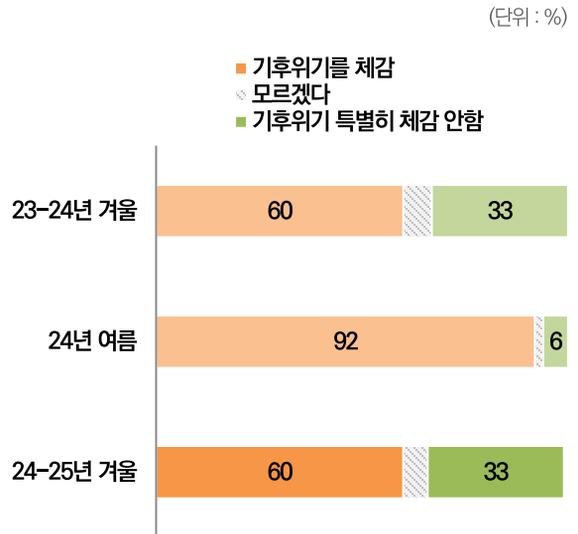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날씨는...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2025. 03. 21 ~ 24

이번 겨울 날씨에서 기후위기를 체감한 사람 60%, 지난 겨울과 비슷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이번 날씨에서...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2025. 03. 21 ~ 24

**60대 이상은 다른 세대보다 이번 겨울 날씨가 평균적인 범주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인식 다소 높아 남성(52%)보다는 여성(69%)에게서 이번 겨울 기후위기를 체감했다는 응답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겨울 날씨는...			이번 겨울 날씨에서...		
		평균적인 겨울 날씨와 큰 차이 없이 비슷했던 것 같다	평균적인 겨울 날씨의 범주를 벗어났던 것 같다	모르겠다	기후위기를 체감하였다	기후위기를 특별히 체감하지는 않았다	모르겠다
<b>전체</b>	<b>(1,000)</b>	<b>44</b>	<b>52</b>	<b>4</b>	<b>60</b>	<b>33</b>	<b>6</b>
<b>성별</b>							
남자	(493)	48	49	3	52	42	7
여자	(507)	41	54	4	69	25	6
<b>연령</b>							
18-29세	(155)	45	50	4	61	34	5
30대	(149)	47	51	2	61	32	7
40대	(175)	44	52	4	62	31	6
50대	(195)	50	44	5	56	36	8
60대	(177)	39	58	3	62	34	4
70세 이상	(149)	40	55	4	61	33	6
<b>거주지방</b>							
중부지방(수도권, 충청, 강원)	(646)	46	51	4	61	33	6
남부지방(영남, 호남, 제주)	(354)	42	53	4	59	34	6
<b>월평균 가구소득</b>							
300만원 미만	(331)	42	53	5	59	33	8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372)	46	50	4	61	33	6
600만원 이상	(297)	46	52	2	61	34	5

질문: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까우십니까? -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겨울 날씨는... // 이번 겨울 날씨에서...

응답자 수 : 1,000명

조사기간 : 2025. 0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전체 겨울 평균기온이 평년과 비슷했음에도 2월의 추위와 잦은 눈이 전체 겨울에 대한 인식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식적으로는 겨울이 아닌, 11월 말의 폭설과 3월에 내린 눈이 겨울 날씨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강수량도 예년 평균을 밑돌았지만,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지난 겨울보다 가중되었다. 측정값이 아니라, 기상현상 발생 패턴과 분포가 실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날씨 및 기후에 대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연평균값과의 비교'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생활 속 불편함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2월 기준 약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8,923명 , 조사참여 1,54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5%, 참여대비 64.6%)
조사일시	• 2025년 3월 21일 ~ 3월 2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 여輿론論

Hankook **Research**

